

대행 스님

조그마한 내 한 티끌 같은 불에서 우주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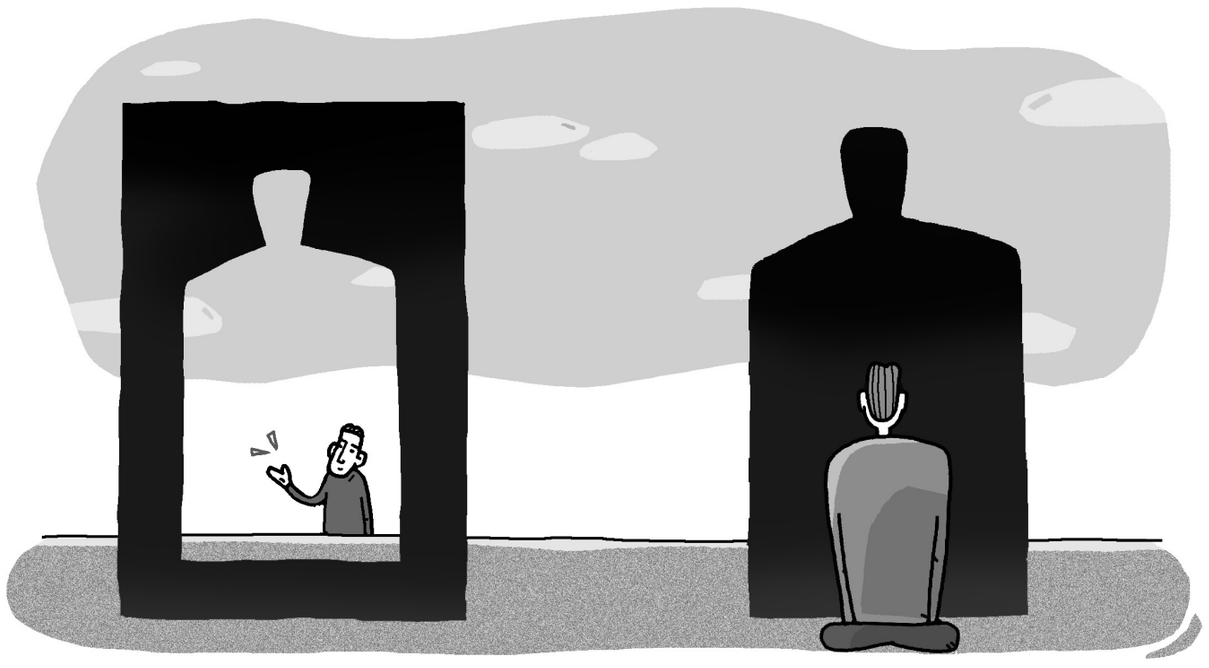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공부하시려고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항상 같이 앉아 주시는데 한편 감사하게도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그렇게 기복으로 자꾸 나가는데, 자기 가짜 면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진짜 면목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까지 쨀끔 나옵니다, 감사해서요. 하하하….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임진왜란' 하는 걸 보시죠? 그랬을 때에 서산 대사 대목이며 일본에서 온 스님의 대목 보셨죠? 물로써 군사를 죽이는 거와 또 물이 치켜 올라가게끔 서산 대사가 던진 문제요. 또는 일본에서 조선을 탐지하러 왔을 때에 서산 대사가, 그 동자가 나서서 모든 스님들을 붙들어서 못 가게 하고 또 가게 하고 이러는 대목 보셨죠? 여러분은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진 모르겠지마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즉 말하자면 애들 만화 정도로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만화가 아닌 진짜 그 동자라면, 스님 자체의 모습은 가(假)모습이지만 스님의 진짜 동자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영화로써 보여 주려니까 그 동자가 보이지 그 동자는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스님의 참동자인 것입니다. 부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참부처님은 줄지 않으면서 바로 동자가 나가는 것은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그, 임진왜란 때 붓을 던졌다든가 물 수 자를 써서 던졌다든가 하는 거는 가(假), 글씨 쓴 거나 종잇장이, 즉 말하자면 가짭니다. 그 던진 것을 따르지 마시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 쥐어서 이렇게 던졌다고 봅시다. 그런다면 그 물건을 쫓아다니지 말고 던진 놈한테 달려들어서 물어라 이거야, "왜 던졌느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 던진 글씨와 종잇장이 진짜가 아니라 그분의 그 참마음에서 진짜 보살행을 하시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불 수레가 돌듯이 말입니다.

그럼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물에 관한 건이라면 그렇게 물로 치고, 악이라면 너무 대의적인 문제입니다. 죽이 끓고 밥이 끓는 데에 대선사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에 나서는 것이 바로 대인의 그, 불바퀴를 돌리는 용(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어이그! 저거 만화 같애. 저거 만화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럴 겁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어느 마음공부 하는 분이 그믐밤에 어디를 지나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졌더랍니다. 덫에 걸린 거죠. 사람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놨는데 고만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도대체 앞뒤가 막혀서 나올 수가 없어, 하늘만 보이지.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부처님을 찾아서, 그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나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 육(肉)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내 마음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육의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을 홀랑 발겨서 얘기할 수 없으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가정이든지 남편은 대들보고 여자는 서까래라고 봅시다. 그런데 대들보다 서까래다 할 게 없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한 식구가 모두 모여서 사는데, 여러분한테 항상 말을 하죠. 우리가 살면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가 재밌게 살고 할 말만 하고 살아도 다 못 하고 사는데 할 말, 안 할 말 다 해 가며 악을 악을 쓰고 이 세상 모두가 제가끔들 그냥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싸운다면 복도 들어오다가도 딱 나가. '이놈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내 맘이 상해서 못 살겠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상에는 돈도 생명이 있는 거고 마음이 있어. 내가 없다면 그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마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력, 판단력이 부실한 사람들은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야. 돈의 구원도 못 받을 것이요, 돈도 나갈 것이요, 복이 다 나가. 그리고 오는 것은 무엇이냐? 액이나, 즉 말하자면 인과응보나 유전성이나 또는 업보가 거기에 매달려서 우환이 끊어지질 않아. 그 마음에 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가정에 진짜로 이익이 될 수 있고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만날 시시한 얘기만 해." 그러지 마시고 더러운 연못에서, 질척질척한 데서 연꽃이 핀다는 거, 그 말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조그마한 내 한 티끌 같은 불에서 우주를 밝힐 수도 있고, 내 마음 하나의 그 마음에서 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복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우환을 끊을 수도 있고, 세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교양, 지혜, 모든 판단이 나옴으로써 우리 가정도 사회도, 지금 공장이나 어떠한 장사하는, 상업하는 분들이나 모든 게 거기에서 보풀어지는 것입니다, 한마음에서.

그러니 모두가 그 마음에서 가설이 돼 가지고 저 태양에나 혹성에나 별성에나 모든, 이 물에나 해안이나 지상에나 산에나 이러한 데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가설이 돼 있단 말이야, 법망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한다면 가설이 돼 있는 대로 다 퍼지게 돼. 잘해도 퍼지고 못해도 퍼지게 돼 있어. 내가 아는 것을 부처가 아는 거니까. 내가 아는 것을 법망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모진 욕을 해서도 아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교양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그렇게 모진 욕을 해서도 아니 되고, 불안을 일으켜도 아니 되고, 또 모진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고, 미운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고, 증오라는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고, 모든 생각을 잘해야만이 우리가 애를 낳아도 기품이 있고 유유하고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어린애를 배면 "가운데 토막으로 먹어라.", "교도소에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가렸습니다. 그것은 옛날 노인네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기도 하면서 너무나 지혜가 컸다고 봅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묘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의 원리를 가졌기 때문에, 한 생각이 그렇게 무섭고 한 증오가 그렇게 무섭고, 그 업보는 뭘로도 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끊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 부유하게 대대손손 끊임없이 부자로…, 부자라는 건 돈이 많아서만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하고 모든 게, 일체가 결부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자라야 돈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면 가정도 가난하겠죠. 모두가 가난해요, 일체가 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앞에, 어느 가정에도 공덕이 깃들고 복이 깃들고 우환과 모든 가환이 녹아 없어지게끔 하는 도리가 지금 내가 일러 드리는 그 도리입니다. 그 도리만 갖는다면 여러분한테 열쇠가 맡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이라고 열쇠가 맡겨지고 중이 아니라고 열쇠가 안 맡겨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습의 증오, 습으로 망하는 수가 있죠. 습을 뗀다면 참 모든…. (중략)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태자 될 아이가 없어서 어느 스님께 빌러 왔는데, 애기를 꼭 줘야만 하겠는데 그냥 줘서 될 일이 아니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 애기나 줘서는 인군이 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두 스님이 친구였는데 하나가 열반하셔서 그리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스님은 그대로 계시면서 그 스님이 바로 그리로 태어나셨어도 천백 화신입니다. 그리로 태어나셨어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더라는 얘깁니다.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그 스님이 열반하셔서 그리로 태어나셨다는 거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야, 망건 쓰고 버선 신고 이거, 40년 살기가 참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느라고 방편을 쓰신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얼마큼 고초가 많고 얼마큼 애로가 많은지를

☞ A14면으로 계속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신간!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